

#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역할

(The Will of God for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Saints)

한숙원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경에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2. 독일의 통일

3.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1)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

(2) 통일에 대한 노력

(3) 한국인의 통일 여론

(4) 통일에 대한 전망

4. 통일을 위한 성도의 역할

III. 결론

참고문헌

초록

## 국문초록

분단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는 분단을 당연시 하며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구약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단과 외세에 의해 포로된 역사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과 유사하게 주변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종교적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과 비교하여 동족의 전쟁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반공의식 등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며 교회는 국가와 상호지지의 관계이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통일, 독일의 통일, 한반도 분단, 교회, 성도

##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존재한다. 분단은 평화에 위협적이며, 이는 국민 안전과 주권에 제한을 줄 뿐 아니라,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쉬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77년의 오랜 기간 분단을 당연시하며 살아오며 적응이 되었고 통일의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함께 개최된 남북회담 등의 기류를 타고 통일이 기대보다 빠르게 올 것 같아 기대를 했지만 2022년 현재 한반도는 냉랭한 기류이다.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남북분단 앞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왜 분단사회에서 살 수 밖에 없는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남북분단이 이루어지고 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되며 다양한 정권들에 의한 여러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분단을 당연시 하고 통일에 대해 함구해 왔다. 물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양한 남북대화과 교류를 위한 합의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결실들이 지속되고 확장되지 못한 채 여전히 외부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분단 사회에 머물러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분단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경륜에 의탁하여 바로 알고자 한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을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평화와 통일이라면 교회와 성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인물들과 다양한 세계사적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동독과 서독의 가교 역할을 하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통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독일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는 독일의 분단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따리를 틀고 있다.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긴 분단 기간 동안 이념갈등은 고착되었으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적 교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북핵문제 등등 풀어야 할 문제들은 다양하고 심각하다.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며, 크리스찬과 교회가 어떤 입장으로 분단을 바라보고 통일에 대처하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성경에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남북의 분단은 하나님이 섭리에 어긋나며 우리의 큰 장애물이다. 이에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특히 구약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분열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붕괴는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면서 시작된다. 열왕기상 2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였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앗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된다(역대하 28장). 이 후 앗수르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여 포로로 잡아간다(왕하 25장, 대하 36장). 유다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며 해방된다(대하36:22-23).<sup>1)</sup>

이스라엘의 분단과 외세에 의해 포로된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민족을 향해 바라는 뜻은 무엇일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될 통일 이스라엘에 대해 외친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고(아모스 1-9장).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호세아 역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묘사하였으며(호세아 14:4-7), 이사야는 1-39장까지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한데 이어 40-66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고, 미가는 준엄하신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미가서 1-7장).<sup>2)</sup>

한 민족이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표현된다. 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 북이스라엘과 싸워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스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역대하 11장 1~5)라는 구절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력과 전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도 알 수 있다. 통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길은 평화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사야 9장과 11장에 따르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에 의해 공평과 평화의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앗수르의 야만적 세계 정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사야 11장 1~9절에서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살며, 아기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칠 것이라는 구절과 같이 시온산을 거점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해됨도 없고 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된 나라이다. 10-16절에서는 이상적인 왕에 의해 통

1) 신현주, 『성경핵심전과 1』(서울: 넥서스Cross, 2013), 391.

2) 김남일, “주전 8-7세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방향.”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복음과 선교』 Vol.45 (2019), 23-25.

합되고 화목하게 되는 미래를 보이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므로 그들은

살상용 무기를 버리고 생산용 농기구를 만들어,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돌입하지 않는다. 전쟁을 통한 힘에 의한 복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과 화해를 통해 공평과 정의의 왕국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민족 통합과 화해 신학을 담고 있다.<sup>3)</sup>

에스겔서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예는 37장(15-28절)으로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각각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자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두 개를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부분이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22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선포한다.

구약의 역사서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일 의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겠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겠다.

## 2. 독일의 통일

한반도 분단과 유사하게 분단을 겪었으나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살펴보면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에 대하여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 정상은 알타회담에서 ‘독일분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후 독일이 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그 해 8월 미국, 영국, 소련 수뇌들의 ‘포츠담회담’에서는 독일을 분할이 아닌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고 단일 행정기구를 통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련의 반대로 독일의 중앙정부 형성은 무산되고, 1947년 12월 ‘마셜플랜’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 내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하자, 이어서 1948년 3월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여 서방 3개국 관리지역에서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육로와 수로를 봉쇄하고 전기, 생필품 등 모든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항공수송작전을 통해 매일 수 천톤의 물품을 서베를린에 공급하며 수호의지를 비추었다. 이듬해 소련은 서베를린봉쇄를 해제하였으나 서방측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며 동서간의 냉전은 본격화된다.<sup>4)</sup> 이에 서쪽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rsrepublik in Deutschland, BRD), 동쪽은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 각각 수립된 후 베를린장벽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로의 노선을 가게 된다.<sup>5)</sup>

독일이 분단된 이후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등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 통일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3) 김회권,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시에 나타난 이사야의 민족화해 신학.”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6권 (2012), 16, 22-23.

4)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47-49.

5) 두산백과, <http://naver.me/F9VRNbRz>

를 꼽는다면 첫째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 총리며 두 번째는 동서독 교회의 변함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82년에서 1998년까지 최장기 총리로 집권한 헬무트 콜 총리는 1989년 9월 시작된 동독주민의 시위사태가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뛰어난 정치 감각과 과감한 노력으로 국내외 정세변화를 통일로 연결시켜 나갔다. 헝가리와 비밀 교섭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 국경선 철조망을 제거하여 동독주민의 대량탈출의 길을 열어 놓았고,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탈출자들을 조건 없이 전원 수용하였다.<sup>6)</sup> 독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다양한 국내 여론과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콜 총리의 과감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소련, 영국, 프랑스가 독일통일에 대한 2차대전 전승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유럽안보회의(CSCE) 규약과 서독 기본법 전문 등의 자결권 규정을 들어 설득하는 등 주변국의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통일 직전 10개월 동안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여덟 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열 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네 번 만나 이들의 동의를 얻어냈다.<sup>7)</sup> 1989년 11월 말 훈미의 국면에서 10개조 통일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통일 논의를 흡수, 압도했고 동독 주민들에게 체제 개혁의 청사진만이 아니라 통일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서독으로의 대량탈출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동독 내부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또한 민족통일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잘 제시했을 뿐 아니라 유럽 통합의 전망도 놓지 않아 외교적으로도 급변하는 정세를 잘 조정하고 향도할 수 있었다.<sup>8)</sup>

독일을 통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서독교회의 역사적 공헌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개혁 이래로 독일의 개신교회는 지역과 신앙고백의 차이에 따라 교파의 분열을 계속되었으나 1922년 (Der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bund)로 어렵사리 연합하게 된다. 하지만 히틀러 통치 하에서 국가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교회인 ‘독일 개신교회’를 이루게 되어 나치정권에 교회가 완전히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 중에 나치당의 요구에 따라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치의 교회탄압정책에 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후 1934년 고백교회 총회를 통해 종교개혁의 원리와 정신을 토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서와 고백’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2차대전이 끝난 후 독일 개신교협의회(Evangelische Kirchen in Deutschland, EKD) 탄생시키게 된다.<sup>9)</sup> 분단 이후에도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EKD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8년 무신론주의적 동독이 새 헌법을 공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악화되므로 동독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서독교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교회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1969년 ‘동독개신교연맹’(Der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r DDR, BEK)으로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외적인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동서독교회는

6)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237-239.

7)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240-243.

8) 이동기, “더 나은 통일안”은 없었는가? 1989/90년 헬무트 콜, 국가연합 그리고 독일 통일.”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10권 (2010). 9, 111.

9) 정일웅,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서울: 도서출판 왕성, 2000), 65-72

내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동독교회는 ‘동독개신교연맹’ 교회법에 지혜를 발휘하여 동서독교회가 ‘특별한 유대관계’ 속에 있음을 명기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동서독교회가 이후 1990년 독일 통일의 순간까지 20년 동안 “특별한 유대관계”를 인내와 사랑으로 유지시켰다는 것이다.<sup>10)</sup>

독일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시그널은 1945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제시한 ‘죄책선언문’이다. 비록 짧지만 전범국에서 나치에 동조한 교회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담고 있다.<sup>11)</sup>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는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인 기관을 독점하고 사상과 행동, 교의와 예배, 설교와 교회의 윤리 등을 포함하는 삶 전체를 통제하였으므로 나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교회 역시 국가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sup>12)</sup>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교회가 죄책고백을 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등 나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잘못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참회이다. 즉 민족과 국가 안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야 하는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재조명한 것이고 이러한 회개가 후에 독일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언급한 동서독교회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들로 열매 맺어 가는데, 그 중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베푼 지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금전 또는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는 동독교회의 농사활동, 임업사업, 부서진 교회의 개축, 새 교회 건축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동독교회로 들어오는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매년 3천만 마르크에서 5천만 마르크 정도였고 이 지원금의 50% 정도는 동독교회의 재정, 20% 정도는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17% 정도는 목회 사역 사례로 사용되었다.<sup>13)</sup> 동독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배경에는 동독 정권이 교회세 혜택을 1956년부터 박탈함으로써 교회 재정의 50%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정권은 목회자에게 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억압 정책을 펴면서 교회가 스스로 사라지길 원했기 때문이다.<sup>14)</sup>

서독교회가 통일에 기여한 사업 중에 정치범 석방 관련 내용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는 1962년 서독개신교연합회가 옥수수, 석탄 등 트럭 3대 분의 물품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동독에 수감되었던 성직자 150여명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음해 서독정부도 동독정부와 교섭하여 32만 마르크를 현금 지급하고 정치범 8명과 서독에 부모를 둔 아동 20명을 서독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성직자와 정치범

10) 주도홍, 『통일, 그 이후』(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67-68.

11) 김영재, “한국교회 죄책 고백과 독일교회 사례,”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지평』 제18권 (2005), 257.

12) 김영재, “한국교회 죄책 고백과 독일교회 사례,”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지평』 제18권 (2005), 272

13) 주도홍,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82.

14) 주도홍,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80.

석방 노력이 결실을 거두자 서독정부는 개신교연합회에 위임하여 기존의 동독교회 지원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 갔다. 이는 순수한 인도적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종교적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동서독의 정치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도였다.<sup>15)</sup> 서독측은 위 사업이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신뢰를 얻고자 배려하였고 동독정부 입장에서 인신매매가 아닌 인도적 시혜로 외부에 비추일 수 있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한 점은 높게 평가될 수 있겠다.

독일 교회가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데는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 및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였던 크리스티안 뤼러, 그리고 그가 주도한 평화기도회를 빼뜨릴 수 없다. 1980년부터 동독 개신교 청년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매년 가을 열흘간의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 평화기도회에서 뤼러는 일관성있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다. 당시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면서 미가서 4장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근거로 “칼을 보습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평화기도회가 월요시위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했으며 월요시위가 본격화된 것은 1989년 9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1989년 9월 25일에는 6000명이 ‘월요시위’를 벌이면서 여행의 자유, 의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10월 2일에는 라이프찌히에 2만 여명의 시위 군중이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동안 동독으로부터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10월 9일부터 라이프찌히의 시위대는 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다. 개혁과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는 동베를린과 드레스덴과 라이프찌히를 흔들어 놓았다. 10월 16일에는 12만명에 달하는 동독시민들이 라이프찌히 거리로 나와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외쳤다. 그 결과 10월 18일 동독 최고 권력자 호네커는 당서기장과 국가 원수직에서 물러나고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된다.<sup>17)</sup>

독일의 통일은 역사적으로 총성 한발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서를 가르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넘어 동서독교회가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았다고 본다. 종전 직후 독일개신교가 모여 먼저 지난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들과 국내외 상황에서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찰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가들, 라이프찌히 교회를 중심으로 동독 국민들이 보여준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모여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 3.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독일의 분단과 비교하여 남북의 분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많고 복잡하다. 우선 공통점은 분단의 시작이 주변 강대국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의 분

---

15)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94.

16) 최용준,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크리스티안 뤼러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학문』 제20권 제4호, (2015), 207.

17) 정일웅,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서울: 도서출판 왕성, 2000), 144.

단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전후처리 차원에서 분리된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 분단이 이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독일과 한반도 분단에서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동존상잔의 전쟁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이 유럽의 지역안보와 평화라는 긴장완화의 흐름을 타고 평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70-80년대 한반도는 월남패망으로 인한 남한의 호전적 반공운동과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팽팽하게 맞서는 냉전적 대결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sup>18)</sup> 더욱이 오늘날 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는 독일 통일 당시 유럽의 상황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다. 우선 북한이 핵무리개발과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NATO와 EC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 줄 강한 유대를 가진 다자 안보나 경제기구가 없다는 점이 그렇다.<sup>19)</sup> 또한 동서독은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로 묶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짧고, 유교와 불교 등 토속신앙과 다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남과 북이 공동의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 (1)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대치이다. 이 국토 분획은 38도선과 휴전선(DMZ)이 한반도를 양분화 한 것과 같은 영토 개념이지만 이로 인해 민족의 분열과, 체제의 분쟁 및 갈등,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지역적 분단 환경을 초래했다.<sup>20)</sup>

한반도 분단의 실질적인 이유로서 당시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에 따른 외인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설득력있게 전개되지만,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인 선택과 결정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등이 결정된다. 이 결정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였고 그 결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된다.<sup>21)</sup> 결렬된 직후 이승만은 정읍발언(1946. 6.3)을 통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하자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북에서는 1946년 초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된다(1946. 3. 5).<sup>22)</sup>

---

18) 박종화,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의 신학적 원리,”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누리와 말씀』 제4호, (1998), 48.

19) 손선홍, 『독일 통일 한국 통일』(서울: 푸른길, 2016), 281.

20) 이기후, “한반도 분단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4.

21)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비상교육, 2020), 236-237.

22) 이수봉,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4호, (2021), 84-85.

이 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고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1948년 3월 남북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유엔의 입북을 거절하였고, 유엔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로 결정하여 북위 38도선 이남만의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1948. 5. 10).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1948. 7. 17)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설립되었다(1948. 8. 15).<sup>23)</sup>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분단에 원천적 책임이 있지만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쪽의 김일성과 남쪽의 이승만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분단을 비극적으로 변질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후 북은 김일성 우상화와 주체사상, 전시체제가 이루어졌고, 남에서는 이승만과 군부독재가 분단을 부정적으로 고착화시켰다.<sup>24)</sup>

분단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서 분단은 더 공고화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단의 부정적인 역사성을 외면하고 현실을 유지하기 원하는 국면과의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다수의 무관심 속에 통일의 당위성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보다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 (2) 통일에 대한 노력

한반도는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시작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조국통일원칙을 발표했다.<sup>25)</sup> 이 후 1984년 서울에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이 원조물자를 보냈으며, 1985년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국무총리급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이른바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문제는 자주적 해결과 남북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2007년 평양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어서 서해 교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sup>26)</sup>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여 국가핵무력

---

23)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비상교육, 2020), 239.

24) 이수봉,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4호, (2021), 86.

25) 이수봉,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4호, (2021), 94.

26)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비상교육, 2020), 302-303.

완성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18년 초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참가하고 급기야 4.27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체결되었고, 연이어 6.11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를 전쟁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sup>27)</sup> 하지만 2019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처사이다.<sup>28)</sup>

분단 이후의 남북 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진보와 퇴보, 화해와 경색의 무드를 반복하고 있어 통일을 향한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

### (3) 한국인의 통일 여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2022년도 1분기 한국인의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단초가 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의 62.4%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sup>29)</sup> 남북합의 계승에 ‘공감’하는 응답층에서는 ‘인도적 협력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선호하는 의견이 50.9%로 과반인 반면 ‘비공감’ 응답층에서는 ‘한미 공조 등 국제협력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나타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대응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69.5%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29.9%)보다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sup>30)</sup>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바라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1994년 통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91.6%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한 조사결과<sup>31)</sup>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과 북은 정치와 경제적인 차이만큼이나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화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범국민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통일에 대한 전망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의 남북통일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당사자 뿐 아니라 분단에 개입했던 국가 및 국제사회와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된 독립된 주권국이므로 내정에 간섭할 수 없지만<sup>32)</sup>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적 다자관계에

---

27) 안인섭,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신학,”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9권 제2호, (2018), 60.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여론·동향 2022년 1분기” 통권 제29호, 9-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여론·동향 2022년 1분기” 통권 제29호, 33.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여론·동향 2022년 1분기” 통권 제29호, 46.

31) 통일연구원, <https://kinu.or.kr/www/jsp/prg/stats/PollQuestionView.jsp?no=2#n>

의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남북한 당사자가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그 의지와 노력을 국제 사회에 분명히 천명한다면 무엇보다 강력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독일 통일에 대해 영국, 프랑스, 소련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주변국들의 이해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당사국이 예측 가능한 내적 외적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력해 나간다면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의 논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실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앞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거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노령화로 통일이 지체되는 현실이 조급하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대륙과 통하는 반도국가로서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예상된다 등 통일 이후 예상 가능한 이득은 다 나열할 수 없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후 상황이 당장은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체제 통합 과정도 서독의 법 체제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인 통합작업은 1990년 7월 발효된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과 1990년 8월 체결된 ‘통일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다.<sup>33)</sup> 동서독은 45년 간 분리된 국가 체제 속에 존재하다가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통일 동일의 체제통합 과정은 큰 갈등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그 중 경제적 후유증은 동독 재건과 동독 실업자의 생계 지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소요된 데서 비롯되었고, 사회적·심리적 후유증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체제 적응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통일 후유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 체제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한 후유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일부 갈등과 문제점이 존재하나 앞으로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통일의 혜택을 향유할게 될 것이다.<sup>34)</sup>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 화해와 소통을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범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꾸준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일교육과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면서 대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치는 분단 시대 독일 평화 정치처럼 동북 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의 맥락이 요구된다. 독일은 한반도 분단과 다르게 민족 내부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에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동서독 통일보다 남북통일이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독일도 통일을 달성하고

32) 김운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탈북민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8권 제1호 (2017), 2.

33)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271.

34)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320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서독 간 구조적 차별 극복을 위해 노력중이다.<sup>35)</sup>

남북 간의 내적인 통일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외적인 통일이며 민족이 하나되지 못하는 절반의 통일이다. 분단시대의 통일 가치로는 통일을 성취하기 어렵다. 동서독은 1990년 10월에 통일이 되었지만 내적 통일의 관점에서 여전히 분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분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통일의 가치를 가지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미 통일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시대의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더 이상 이기기 위한 노력이 아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으로 피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sup>36)</sup> 남과 북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닌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먼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4. 통일을 위한 성도의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한반도의 분단이 아니므로 성도는 통일과 민족화해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통일의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모두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츠빙글리에 의하면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국가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가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일치하므로 교회는 평화 통일을 위해 적극 후원하고 협력해야 한다.<sup>37)</sup> 즉 국가와 교회는 상호 지지의 관계이며 교회는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국가와 교회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나 이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안인섭(2022)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국가와 함께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해받고 있는 북한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나서서 활동해야 하며 국가가 평화 통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판해야 하고, 교회는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에 따라 평화 통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8)</sup>

교회가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여러 개의 다양한 그룹과 교단이 존재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서로 연대하여 ‘독일개신교동맹체’를 구성

---

35) 민경미, “평화로 가는 여러 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혁신 방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2.

36) 이수봉,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4호, (2021), 20.

37) 안인섭, “츠빙글리의 국가론에 근거한 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22, 제13권 1호, 29-30.

38) 안인섭, “츠빙글리의 국가론에 근거한 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22, 제13권 1호, 28.

하여 하나로 결속하고 뭉쳐진 힘으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연합하여 북한을 돕는 선교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sup>39)</sup>

통일을 위해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모든 교회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현재 여러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순위는 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통일 전 독일에서 선택한 슬로건과 같이 미가서 4장 3절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근거로 남북이 전쟁이 아닌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대북 NGO의 활동을 강화하여 복음 전파 이전에 북한 주민을 감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린 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식량, 생필품, 의료 및 의약품 지원 등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물질을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 대북 NGO는 식량 및 생필품, 의약품 지원 외에 보건의료시설 및 육아원시설 지원, 영농개선 지원,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을 통해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남북 주민간의 인적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며 북한 사회의 변화에 상당부분 기여한다.<sup>40)</sup>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 지원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서독 교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처럼 기독교 NGO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의 물꼬를 트는 다각적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은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교회는 탈북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시146:9) 분으로 말씀하신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추어 공의로운 사회가 될 때 세상의 핵무기나 어떤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이다.<sup>41)</sup>

### III. 결론

우리나라에 구한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지 약 150여년이 지났다. 우리 민족이 과거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 등 주변 강대국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거치며 망하지

---

39) 정일웅, “한국교회의 성경적인 통일노력, 무엇을 어떻게?”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13, 제7권, 8.

40) 오일환,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 정치학적 관점”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10, 제4권, 10.

41) 김윤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탈북민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17, 제8권, 24-25.

않고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이다. 하지만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70여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지 화두를 던져야 한다. 분단 상황에 적응이 되어 과연 통일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격변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의 부패와 무능으로 기울어져가는 가운데 1907년에 발생한 평양대부흥운동은 영적인 운동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조명해 준 역사적 의미가 있다.<sup>42)</sup> 이 시대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은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안주하여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 찾아야 할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동족상잔의 역사와 이념으로 대립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회개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화해와 평화를 구하는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차원에서의 어떠한 시도나 노력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42) 안인섭, “평양대부흥운동과 남북 평화통일”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2008, 제75권 1호, 177-178.

■ 참고문헌 ■

- 김남일, “주전 8-7세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방향.”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복음과 선교』 Vol.45 (2019), 23-25.
- 김영재, “한국교회 죄책 고백과 독일교회 사례,”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지평』 제18권 (2005), 257.
- 김윤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탈북민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8권 제1호 (2017), 2.
- 김회권,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시에 나타난 이사야의 민족화해 신학.”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6권 (2012), 16, 22-23.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비상교육, 2020), 236-237.
- 두산백과, <http://naver.me/F9VRNbRz> (검색일: 2022. 7. 5).
- 민경미, “평화로 가는 여러 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혁신 방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여론·동향 2022년 1분기” 통권 제29호, 9-10.
- 박종화,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의 신학적 원리,”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누리와 말씀』 제4호, (1998), 48.
- 손선홍, 『독일 통일 한국 통일』(서울: 푸른길, 2016), 281.
- 신현주, 『성경핵심전과 1』(서울: 넥서스Cross, 2013), 391.
- 안인섭, “평양대부흥운동과 남북 평화통일”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2008, 제75권 1호, 177-178.
- 안인섭,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신학,”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제9권 제2호, (2018), 60.
- 안인섭, “츠빙글리의 국가론에 근거한 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22, 제13권 1호, 29-30.
-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47-49.
- 오일환,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 정치학적 관점”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10, 제4권, 10.
- 이기후, “한반도 분단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4.
- 이동기, “더 나은 통일안”은 없었는가? 1989/90년 헬무트 콜, 국가연합 그리고 독일 통일.”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9, 111.
- 이수봉,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4호, (2021), 84-85.
- 정일웅,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서울: 도서출판 왕성, 2000), 65-72
- 정일웅, “한국교회의 성경적인 통일노력, 무엇을 어떻게?”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2013, 제7권, 8.
- 주도홍,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82.
- 주도홍, 『통일, 그 이후』(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67-68.
- 최용준,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크리스티안 뤼러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학문』 제20권 제4호, (2015), 207.

통일연구원, <https://kinu.or.kr/www/jsp/prg/stats/PollQuestionView.jsp?no=2#n> (검색  
일: 2022. 7. 10).